

Vision Korea ● ● ● ● ●
National Conference ● ● ● ● ●
Highlights ● ● ● ● ●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 ● ● ● ●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란

"21세기는 지식이 세상을 지배한다."

"창조적 지식강국으로 한국을 재우장하자."

1997년 매일경제가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내용은 비전입니다.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믿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매일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 건설기업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 싱크탱크와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개인·기업·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명확한 수치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왔습니다.

12년간 16회 보고대회에서 총 18개 보고서 쏟아내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1997년 중국과 일본 사이 한국의 위기인식을 넘겨주려 속 후두에 빛대어 분석한 '후보보고서'를 시작으로 총 12년 16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18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보고서를 매회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매일경제(사투)과 MBN 보도를 통해 국민적 호응을 촉발시켜 공간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했습니다.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의 파워 - 258개 제안 정부정책으로 채택 및 고려

- ※ 김대중 정부, 제 1·2·3차 국민보고대회 주요 제안 채택 및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대 국정과제 채택
- ※ 노무현 정부, '비전2030 보고서'에 제 2·6·7·13차 국민보고대회 제안 고스란히 반영
- ※ 이명박 정부, 제15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두터워 법위세 인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등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 채택
- 2009년 제16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가 아닌 교육·과학·녹색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
- ※ 제 4·5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여성인력 활용방안, 대부부 정부 정책으로 채택 및 고려



2009년 제1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참석 인사들의 강령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는 어려운 시기이다 우리 경제의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국가 발전의 길잡이 구실을 하겠다.

인법부를 대표해 오늘 제시된 대안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정책화, 법제화하는 데 힘쓰겠다."

- 김형오 국회의장

"발표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매경이 해줬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막혀 있는 것이 뿔 날리는 듯 속이 다시 시원했다"

매경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고 어젠다 하나하나 모두 버릴 것이 없다"

- 최취영 NHN 사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매우 좋았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고 매경이 제시한 것처럼 실천에 옮겨야 한다."

- 김신배 SK C&C 대표이사 부회장

"정부 고위관계자,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 지도자들이 매경이 개최한 보고대회에 참석해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미시모 인드레아레저리 주한이탈리아대사





한국보고서 <제1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부지 앨러 & 해밀턴 (1997년 10월31일, 서울 신리호텔)

한국은 내부적으로 정부주도 경제성장인 관계에 도달했고
외부적으로 저비용 중국과 '고효율 일본' 사이 넷 크래커 속에 긴 호두와 같이
변하지 않으면 부실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경제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 한국보고서

액션플랜

- 정부 개혁 - 정부 부처·기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책임 분리, 자유경제인·공정경쟁위원회·금융서비스위원회 설립으로 디제
- 금융시장 개혁 - 은행의 정부 의존도 탈피를 위한 Korea Resolution Trust 설립
- 노동시장 개혁 - 유연성 확보 위한 정리해고, 조항 완화와 임시고용제 실시, 실업지원책 강화
- 지식기반 - 외국 기업과 외국인 R&D 전용기 유치
- 기업기 정선 - 기업기 정선 절차를 위하여 기업기의 벤처 자본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인센티브제도 마련
- 지역 통합 및 범세계적 연계 - 동북아시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위해 주변국과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

1997



한국 재창조 보고서 <제2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맥카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1998년 3월 25일, 서울 그랜드 히얏트 호텔)

과거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가치를 파괴하여 진행된 성장이었습니다.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재창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성장기적 성장에 대한 목표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 맥카지 보고서 지식인력 보고서 맥카지신일본 보고서



액션플랜

- 엄격한 토지 관련 법규와 분양가 상한선 규제 완화
- 금융상품과 금리에 대한 규제 완화 통한 소매 금융 활성화
- 통신부문의 가격 규제 완화
- 전면적 경제 개혁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축소 제언
- 세계적 수준의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선진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도입

1998



두뇌강국 보고서 · 신지식인 보고서 <제3차국민보고대회>

● <두뇌강국 보고서> 매일경제 - 모니터 컴퍼니

'두뇌강국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지식기반사회 재도약하기 위한 지식경쟁력 증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신지식인 보고서> 매일경제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정보화 전략연구센터

'신지식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와 생산성 격차의 근본원인으로 제기된 지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담았습니다.

(1998년 12월 2일, 서울 신라호텔)



※ 단행본 : 두뇌강국 보고서, 신지식인

액션플랜 - 두뇌강국 보고서

- 회사의 지식 역량 강화 범용으로 구조조정 추진
-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 - 대학졸업생에 초점 맞춰진 입사시험 제도 폐지
- 학습교육부 신설 - 교육부의 노동부를 통한, 교육 - 노동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전
- 외국인 직입부지뿐만 아니라 인력 및 시장을 늘리며, 영아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영국의 지식 유입 촉진자를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인센티브제도 마련
- 지역 통합 및 범세계적 연계 - 동북아시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위해 주변국과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

액션플랜 - 신지식인 보고서

- 구성원을 지식제공자로 인식, 지식 창조 동기 유발
- 지식 중의 무형화 자산 관리 활성화
- 기업 내 지식사전 조성 및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관리시스템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적극 활용

1998



지식경영 전략 보고서 · 학습혁명 보고서 <제4차 국민보고대회>

● <지식경영 전략 보고서> 매일경제 - 아서 앤더슨

기업의 지식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경영 진단 자료를 개발하고 국내 대표기업의 지식경영 수준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 <학습혁명 보고서> 매일경제 - 서울대학교 한승희 교수팀

신지식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 문제 및 선진 한국을 향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 5월 1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 단행본 : 학습혁명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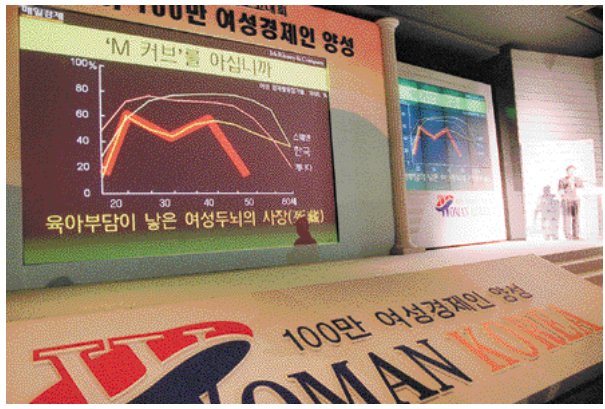
액션플랜 - 지식경영 전략 보고서

- 지식전략 평가 - 지식경영 개념의 조직 전략 내 포함 여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여부, 고객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 포함 여부
- 성과측정과 보상체계 평가 - 조직차원에서 지식경영의 성과가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 지식공유를 위한 규칙적 장치 수립 여부
- 지식경영 문화 및 체계

액션플랜 - 학습혁명 보고서

- 교과서 폐제 - 7년에 한번 씩이 아닌 자유화정책 정착 및 교과서 디지털화
- 교육과정 구성원 교사에게 영입 - 교사가 먼저 실천적 지식이 되어야
- 분심학교 전문기업에 위탁 경영
- 평생학교교육부 신설 - 교육부 행정업무의 통통부 기능인력 업무 통합으로 신지식인 양성
- 학습 최우선의 기업 문화 주도

2000



우먼코리아 보고서 <제5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맥쿠지 (2001년 4월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IMF 경제 위기 등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경제를 활하게 밝힐 수 있는 주체는 여성입니다. 제5차 국민보고대회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적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국하는 경험들을 찾아보고, 2010까지 여성 인재의 활용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 우먼코리아 보고서

액션플랜

- 웹사이트를 통한 여성인재 활용 추진 과제 현황 및 성과 공개
- 기업별 지방적 남녀 고용평등프로그램 개발
- 공공 부문에 대해 채용 목표제, 승진 형평제, 인센티브제 등의 실시 강화
- 모성보호제도 개편안의 신속한 입법화 및 시정회 발지
-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향상, 기업은 1직장 1보육시설 설치
- 직업훈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시스템 개발
- 남녀 고용차별 구제 기금의 강화 - 여성부등에 실질적인 시정명령권 부여
- 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현상성 있는 법칙 마련

2001



비전2010 한국 경제 보고서 <제6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맥쿠지 (2001년 5월 30일, 서울 롯데호텔)

제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비전2010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2010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까지 한국이 OECD 국가 상위 10개국 수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 단행본 : 비전2010 한국경제



액션플랜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80조원 투입
- 2004년까지 이차보상배율 200% 미만인 부실기업은 대출 중단
- 정치적·집단적 이익을 포기하고 초당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 능력 있고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재구성할 것
- 한국기업회계기준 외에 미국 회계 기준 또는 IAS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

2001



세계 초일류 대학 조건 보고서 <제7차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맥킨지 (2001년 12월 19일, 서울 힐튼호텔)

2001년 전국적으로 교육개혁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앞서 외국 유명대학의 총장, 학장 출신으로 구성된 지문위원단을 통한 서울대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맥킨지(McKinsey)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초일류 대학 조건 보고서와 제7차 국민보고대회에 내놓았습니다.

서울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들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전반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액션플랜

- 최첨단 경영구조 수립
 - 대학 행정 부분의 재편 및 강화, 총장과 학장의 임기연장, 임명절차 개정, 역할 재정립
 - 출석 임원 또는 해임, 학교 재정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
 - 교수회의의 구성 통해 대학 행정본부에 의견 제시, 커리큘럼과 교수진 평가 감독
- 임직원 평가 및 World-Class 표준에 기초한 최고 수준으로의 발전
 - 신입 및 출신 교수들에 대한 임직원 평가
 - 우수화 프로그램과 개인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보상 제공
 - 서울대의 세가화
- World-Clas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 및 분배
 -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에 합의 및 자금 조성의 수준 개선



정치경쟁력을 높이자 - 정치 재창조 보고서 <제8차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정치개혁프로젝트팀 (2002년 4월 3일, 서울 신라호텔)

제8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췌한 '정치재창조보고서 - 정치경쟁력을 높이자'는 파टना심 정치의 부재와 대한민국 변화의 구상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발췌한 2002년 국가경쟁력지표를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환경이나 기술수준보다는 정치가 국가경쟁력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경쟁력은 세계 75개국 중 52위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일경제는 국민보고대회에 8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션플랜

- 대통령 당직포기
-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기획원 설립 통해 국가 과제 수립과 실천을 감시
- 검찰, 공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인사와 임무 중립성을 확보하여 권력기관 중립화
- 능력 없는 의원 퇴출
- 공천권 독점 폐지
- 국회의원 KDI
- 대통령과 여야리더가 친밀이사로 참여해 국가 비전과 과제들 협의, 결정하는 'G10 이사회' 설치
- 의원수 2배 확대 통해 의원 간 경쟁 유도

2001 2002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제9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 (2003년 2월 13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3년 2월,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향과 명확한 수치목표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액션플랜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결정하는 3가지 변수로 신뢰(Trust),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놓고 먼저 '숫자'를 탄 'TCE' 패러다임을 제시
- 경제구조전환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기업가가 시장을 관철하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관철하며, 기업가정신을 갖고 자신의 창의와 모험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
- 국제경쟁지수(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재분석해 TCE 가 강한 나라가 기업용용성이 높음을 증명
- TCE를 높이는 일이 한국경제가 1인당 소득 2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2003



글로벌 '톱10' 키우자 <제10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보스벤처셀링그룹 (2003년 6월 26일, 서울 시라호텔)

전 세계 글로벌 톱10 기업 중 299개 중 미국이 126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던 것이 당시 현실입니다. 글로벌 톱10 기업이란, 글로벌 산업 내 매출순위가 10위 이내 인 기업 중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거두는 기업을 뜻합니다.

매일경제는 제1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글로벌 톱10 키우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글로벌 톱10기업이 적어도 7개는 있어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 Mission \$20,000



액션플랜

<글로벌 톱10 기업 육성방안>

- C-커브 전략 - 가치 파괴에서 가치 창출로
- Up 마켓 공략 - 브랜드 Value, R&D, 마케팅 등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
- 기업인력의 새로운 역할 - COO가 아닌 CEO로서의 책임 - 제도개혁
- 톱10 정부가 톱10기업 만든다. G10 국가 실현

2003



우리경제, 체질을 바꿉시다 T-시프트 <제11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IBM BCS (2004년 3월 25일, 서울 신리호텔)

넷 크래킹(Nut Cracking)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 도약을 위해 '우리경제 체질을 바꿉시다 T-시프트(T-shift) 실천방안'을 제11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했습니다. T-시프트는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의 체질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개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매일경제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 4개 산업에 편중된 구조가 아닌 성장동력산업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T-시프트 성공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역선편랜

- 구조개혁을 주도할 '경영엘리트 육성'을 위한 사내 전문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 마련
- 기업 간 가치 네트워크 형성을 가로 막는 '하청 문화'를 청산 및 신뢰 파트너십(Trust Partnership) 형성
- 기업의 유희경영 및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희경영회(EOA)를 구성, 스스로 기업투명 보고서 발간으로 합
- 핵심부품 산업, 서비스 전문 이웃소싱 기업 등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청화·전문화를 지원, 중소기업 M&A 지원법 마련 필수.
- 구조개혁 기간 중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료별 분야별 실업 대책 요구됨, 영국의 뉴딜 정책의 모범으로 실어 환국형 실업정책 수립을 제안



Creative Korea 창조적 국가를 만듭시다 <제12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AT커니 (2005년 3월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트호텔)

'Creative Korea 창조적 국가를 만듭시다'는 창조적 국가를 만드는 것이 결국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대로 초미, 평생상부란 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제12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창조적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측정 지수를 제시했습니다. 창조성 지수를 도출해 지수를 0.5포인트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매출액이 두 배 이상 상승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사적도 찾아했습니다.



※ 단행본 : 창조적기업 보고서



역선편랜

- (기업의 과제)
 - CEO커뮤니케이션 확대
 - 투과 정보기회 공존하는 조직
 - 위임자재가 안착할 수 있는 문화
 - 한국형 데이터리포트 제도
 - 성과급 대폭 확대
 - 창조를 위한 시간 확보
- (후원자청 정부, 0정 정부 만들기)
 - 정부 스스로 한 약속 이행
 - 데이터의 시스템으로 전환
 - 창조성 보호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
 - 창조성 지수 0.5포인트 향상된 정부
 - 감사원의 직무감정 제도 개선



3만달러 한국, 80만 핵심 인재를 키웁시다 <제13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머서 경영 컨설팅(現 올리버 와이먼) (2006년 5월 3일, COEX 컨벤션센터)

창조의 시대에는 인재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일본의 부흥과 중국의 속속 속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인재'입니다. 매일경제는 제13차 국민보고대회 보고서를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80만명의 A급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급 인재란 한국 기업이 선호하며 기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규정하는 천재급 인재가 아닌,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들을 말합니다. A급 인재 양성을 위해 그들을 우대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인재들에게 롤 모델이 될 스타 직원을 키우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 2015 대한민국 인재 보고서

- 액션플랜
(기업의 과제)**
- 여러분부터 A급 찾기가 되십시오
 - CAI(최고 A급인재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인재 채용은 해당부서에 맡기십시오
 -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 충분한 성과급을 주십시오

- <정책 과제>**
- 정부는 A4 경제활동인구 4%에 달하는 A급 인재 육성에 주력하십시오
 - 교육부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십시오
 - 행민족 A4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십시오
 - 외국인 A4 인재 채용 쉽게 해주십시오
 - 개원과 규제완화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2006



머니 워킹 코리아 - 금융한국 만듭시다 <제14차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금융프로젝트팀 - 한국금융연구원 - 보스런컨설팅그룹 (2007년 3월 21일, 서울 신라호텔)

더 이상 제노인인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이 사람을 대신해 기계 자본이 일하는 경제를 만들어 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이 일하는 경제(Money Working Economy)'야말로 일시적인 경기 부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지난 100여 년간 한걸음씩 세계 경제 주도권을 유지해 온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매일경제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국 금융산업의 잠재력이 프랑스·독일·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금융산업의 뉴 미디어임을 통해 한국 경제가 주력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해 국민소득 3만달러에 주기 진입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 Money Working Korea



- 액션플랜**
- 금융감독 교위직에 외국인들을 영입하자
 - 금융산업의 '메가'를 키우자
 - 노조는 일방적인 경영간섭을 없애자
 - 금융CEO는 기업이 정식으로 도출하자
 -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종적 시각을 버리자
 - 리디노미네이션회폐 역면인위 반경에 대한 경단을 내리자
 - 송도물 금융자유도시로 만들자
 - 시아비 회폐로 미래 금융 주도권을 잡자

2007



Great Korea, 대한민국 만듭시다 <제15차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베이 & 컴퍼니, OECD (2008년 1월 22일, 신라호텔)

2007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2만달러=선진국'을 뜻하는 상징성은 이미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2007년 당시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34개국, 4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19개국, 룩셈부르크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고, 선진국과의 경제규모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매년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에 처해되었습니다. 이에 매일경제는 더 높은 성장과 체질의 감질점 사이에서 GREAT KOREA,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 단행본: 'Mission 10만 달러'

액션플랜 (3대 허를 허물고 국민소득 10만달러 패러다임으로)

- 규제 허를 허물고 한국 전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기
- 국정 허를 허물고 경제영도 100배 넓히기
- 품질 허를 허물고 사회적 자본 3배 키우기



Smart Korea, 위기를 승리로 <제16차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 AT커니 (2009년 3월 18일, 서울 신라호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7천만부터 흔들었습니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러 대비책에도 한국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매일경제는 공동 연구와 세계적활동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경제체질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16차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경제가 스마트(Smart, 영리하고 민첩)한 전략으로 위기 후 더 강한 한국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분석,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단행본: '스마트 코리아'



액션플랜

-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추진한 세종핵심중심특화도시의 문제점을 지적, 국내 연내 중 저음으로 세출수용 사실상 행정수도가 아닌 과학·교육·녹색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제안
- 아시아를타이거급 경쟁 주도 및 분부 한국 유치
- 국제기구의 공동주도 통한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주기
-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보호주의 확산 경계 및 'Small Open Economy' 대변자 역할
- 한남-수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 한국을 아시아의 소비허브로

